



영원한 후회

장 정 님

<서울특별시 중구만리동2가199의73>

어느새 싱그러운 오월이 다가고 여름의 문턱, 유월이 다가오고 있다. 우거진 신록, 높고 맑은 하늘, 알맞게 따거운 햇볕, 남들이 모두 좋아하는 이 오월을 나는 짓눌린 마음으로 무겁게 살고 있다.

내가 축복 받은 계절을 남들처럼 밝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조이며 지내는 것은 금년에 고등학교 일학년여에 진학한 딸아이 때문이다. 아니 딸아이 때문이라기 보다 딸아이로 하여금 정신병원 출입까지 하게 만든 나의 섣을 수 없는 실수, 그 죄책감 때문이다.

이제 여름이 되면 모든 여학생들은 반소매의 날아갈듯 산뜻한 교복들을 입고 한껏 부른 사춘기의 발랄함을 뽐낼 것이다.

그러나 중학 삼년간의 여름내내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도 유독 혼자만이 긴소매의 춘추복을 입고 학교문을 드나들어야 했던 딸아이는 금년에도 웃음을 잃고 그슬픔을 되새기리라.

처음 딸아이가 큰 화상을 입었을 때만해도 나는 생명을 건진 것만도 큰 다행으로 여겼다. 현대의술이 극도로 발달해있으니 치료만 받으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권위있는 큰 병원에서 몇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팔의 흉터를 아주 지울수는 없었다. 워낙 큰 화상이었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수술이 끝난 후 까지만 해도 어린나이였던 딸아이는 보기 흉한 팔의 흉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그저 얼굴의 작은 흉터가 보기 싫지 않게된 것만을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변해갔다. 특히 중학생이 된후 첫하복을 입게 되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더니 마침내 중학 삼학년 때는 정신이상의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청량리 국립정신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팔의 흉터로 인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이라고 했을때 나는 마음속으로 소리없이 울

었다.

다행이 증세가 가벼웠기에 동원 치료를 했고, 일개월의 휴학후 다시 등교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나는 여름이 돌아오면서 다시 무거운 압박감으로 남몰래 몸부림 치는 것이다.

이 무거운 죄책감에서 언제나 벗어나게 될런지? 딸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아니 어쩌면 평생을 두고 이 아픈 후회를 되풀이 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그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이 건더기 어려운 명에는 썩어지지 않았을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지워질 수 없는 그 순간의 실수를 나는 다시 참회의 심정으로 조용히 되돌아 본다.

시골 여학교를 졸업하고 조용히 집안살림을 돕고 있던 내가 서울에 올라온것은 지금의 남편인 그이와 결혼한 며칠후였다. 운전병으로 제대한 그이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살림을 서울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당시 영업용 택시의 운전수 수입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이는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집념으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차를 몰곤 했다. 쉬는 날도 될 수 있는대로 즐기려 했다.

나도 그이가 혼자 고생하는 것이 미안해서 같은 셋방살임을 하는 아주머니를 따라 길가에 리어커를 놓고 과일을 팔았다. 처음엔 그이도 말렸지만 결국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이렇게 둘이서 노력한 덕분인지 우리는 삼년만에 조그만 가게 하나와 안집이 달린 집을 사서 현저동 판자촌으로 부더 서대문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집을 산 후에도 그이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고, 나는 구멍가게를 벌였다. 그땐 벌써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 가게를 보기가 힘들었지만 재산을 환권이라도 돌려보겠다는 욕심에 이를 악물고 피로물이 거렸다.

그런데 어느날, 뜻밖에 그이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기에 경제적 손실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 때문에 그이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상처의 후유증으로 핸들을 오래 잡으면 옆구리가 걸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기회에 위험한 운전수 생활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튀김장사다. 한참 재미를 보고 있던 먼 친척이 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큰 밀천이 안 든다는데 마음이 쏠렸다.

장사는 처음엔 시들했다. 튀김 솥에서 시원찮은 데다가 많이 알려

지지 않은 탓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르면서 우리 가게는 점차 붐비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우리 부부도 눈코뜰새 없이 바쁜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고보니 나는 가끔 정신없이 덤벙거릴 때가 생겼다.

불 때문에 처음 혼이 난 것은 바로 이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팔개 월급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장사가 본 체도에 올랐을 때였다.

계절은 봄이었지만 아직 찬 기운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아침에 찬물을 만지면 제법 차갑던 어느날, 나는 전날밤 먹다 남은 밥을 데워서 아침 때울 생각을 하고 석유곤로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얼마동안 타고르던 불꽃이 자꾸 시들어 갔다. 살펴보니 석유가 바닥이 나 있었다.

나는 귀찮은 생각에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곤로에 석유를 붓기 시작했다. 그런데 누가 예상했으랴! 갑자기 평하는 소리가 나더니 석유곤로가 확 불길에 싸이는데 아닌가 나는 앓쩍한 기분으로 비명을 질렀다. 마침 곁에 있던 그이가 쌀가마니며 물통을 재빨리 뒤엎어 불길을 잡았다.

잠시후 그이가 노력보며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래? 우리집은 기름을 많이 만지니까 항상 불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다행이 곤로와 석유병에 기름이 적었으니 망정이지 가득 들었드라면 무슨 수로 불길을 잡을 수 있었겠어.”

나는 이때 불조심에 대한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어야 했다. 조그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가를 깊이 깨우쳐야 했다. 그때 굳은 결심을 하고

항상 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무거운 귀책감속에서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망작의 동물이라고 했다. 직접 뼈아픈 재앙이 휩쓸고 가지 않으면 웬만한 교훈은 쉽사리 잊고 만다. 나도 시일이 흐를수록 조그만 실화사건을 차츰 잊기 시작했다. 그이가 불조심 하라는 소리를 염불 외듯 할때는 되려 짜증까지 나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이의 그러한 조심성 때문에 기름과 불을 많이 만지는 장사를 하면서도 수년간은 작은 실화 조차 없이 무사히 넘겼다.

그러나 화재예방이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나는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딸아이가 갓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그해 봄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됐다. 그대로만 간다면 수년안에 계획대로 시골에 내려가 남부럽지 않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리라 싶었다. 그러나 세상일 그게 뜻대로 돼주질 않았다. 아니 뜻대로 돼주지 않은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날밤도 여전히 장사가 잘 됐다. 우린 매일 그랬듯이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교대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딸아이의 밥상을 미처 치우지 않았던 그날은 예외의 때와 달리 내가 먼저 먹고 나오려고 뒷마당을 건너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에 들어서니 딸아이는 밥상을 그대로 둔채 어느새 깊이鼯아 떨어져 자고 있었다. 나는 밥상을 대충 치우고 공기밥을 재빨리 떠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만 깜박하고 전등이 나가버렸다. 경대설합에서 전에 쓰다남은 양초를 꺼내 불을

불인 나는 쉽게 눈에 띄는대로 딸아이의 그즈만 나무책상에 양초를 붙였다.

밥을 다 먹고, 그이의 밥상까지 보고 난 다음 나는 촛불을 끄까하다가 양초길이가 아직 상당히 남은 데다가 그이가 들어와 다시 불을 켜리던 불편하리라 싶어 그대로 두고 얼른 나가서 교대하기로 작정했다.

가게에 나가보니 마침 손님도 한 사람밖에 없어 그이도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때, 손님이 세사람 들어 왔다. 돌아선 그이는 얼른 식은 튀김이나 몇개 덤벼주고 들어가왔다 했다. 나도 그쯤이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연거푸 손님이 밀려드는 통에 나는 그만 촛불을 켜놓고 나온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모든 손님이 나가고 그이와 함께 한숨을 돌리는데 안방쪽으로 부터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급히 뒷문을 밀쳤다.

아차! 안방문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길 속으로 부터 딸아이의 비명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그이가 급히 뛰어가 미닫이 문을 확 잡아 재겼다. 동시에 불길이 확 쏟아져 나왔다. 순간적으로 주춤

던 그이는 곧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딸아이를 안은 그이가 한개의 불덩어리 처럼 튀어나왔는데 딸아이는 이미 정신을 잃었고 왼쪽팔 쪽이 계속 불에 타고 있었다.

자기 옷에도 불이 붙었던 그이가 딸아이를 재빨리 내려놓는 순간 나는 급한김에 얼른 달려들어 딸아이의 옷옷을 확 잡아 벗겼다. 그러자 아 거기엔 그 곱던 딸아이의 하얀 피부 대신에 보기에 도 끔찍한…… 지금 다시 표현하기도 싫은 모습이 내눈을 뒤집어 버리는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어찌구무 없게 어리석은 것이었다. 타버려 옷에 달라붙은 피부를 옷과 함께 헐것 잡아다냈으니 그모양이 어찌겠는가 허나 그때는 이런것 지런것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좌우간 당시 나는 불이고 뭐고 경황없이 딸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약간 뒷 이야기가 되겠지만 불행 중 다행이랄까, 우리 안방이 다른 집과 연결이 안된데다 이웃들의 신속한 도움, 그리고 재빨리 출동한 소방차 덕분에 피해는 우리집으로만 그쳤다.

이렇게 해서 왼쪽 팔에 끔찍이도 흉한 화상을 입은 딸아이는 신촌의 모 대학부속병원으로 옮겨 오던 기

간을 두고, 굳어버린 힘줄과 사라져버린 피부를 재생하기 위해 이차삼차 거뜬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괴담흔려 장만한 재산을 몽땅 털다싶이 디밀어야 했던 치료비는 쟁쳐 두고라도 딸아이의 고통스리워하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은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건만 딸아이의 완쾌는 결국 원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도 왼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데다 그 흉한상처는 뇌살아 나기라도 하듯 아직도 거의 20여 센티나 점봉은 용트림으로 남아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감정이 예민한 사춘기 나이가 되면서 딸아이는 팔을 보이기 쉬운 여름이 되면 무척이나 고민을 하는 모양이다. 오죽하던 정신이상증세까지 나타났을까. 그러기에 나는 여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하루에도 몇번씩 내 팔과 바꿀 수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어떤때는 남몰래 이 불속에 얼굴을 파묻고 그 부주의했던 시절을 저주스럽게 후회한다. 그러나 다 소용없는 일, 나는 불을 조심하지 않았던 경솔한 생활태도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후회속에 살아야 할 모양이다. (끝)

